

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행복한 체육계 만들겠다”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탁구 부흥 주도 “이기흥 회장 3선 저지 위해 단일화 필요하다면 참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승민 전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배경과 체육회를 이끌어갈 구상을 밝혔다.

유 전 회장은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 최저시급 밖에 되지 않는 처우 속에서도 선수 한 명 키워보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발버둥 치는 지도자들, 그리고 갈수록 떨어지는 스포츠 관심에 취재 환경마저 현저히 어려워졌다”면서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시금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저 유승민이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시각각 바뀌는 현장의 상황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경험을 어렸을 때부

터 몸으로 체득한 현장 출신 행정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선수들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학부모의 마음, 행정가로서 마음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가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체육계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체육회와 체육계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 지방체육회 및 종목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 선수 & 지도자 케어 시스템 도입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중심 K-스포츠 ▲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향상 등을 제시했다.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회장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단일화는 기술적이고 복

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 제가 후보 중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탁구협회장 시절 불거진 기부금 의혹 등에 대해서 “선거를 앞둔 네거티브는 후보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탁구협회장 재임)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유치해 유소년 발전과 국가대표팀 운영 등에 썼다.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탁구협회 수장이던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별세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9년 5월 탁구협회장에 올랐고, 2021년 11월 선거에서 재선돼 4년 더 임기를 수행하다가 체육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9월 사임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그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탁구가 혼합복식과 여자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하는 등 12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내는 데 앞장서고 탁구 부흥을 주도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대한체육회장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윙크보이’ 이용대, 세계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 입성

화순출신의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36)가 2024 BWF(세계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BWF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드민턴의 전설 이용대와 천룡(중국)이 2024년 BWF 명예의 전당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BWF는 “역대 가장 재능 있는 복식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이용대는 코트에서 다재다능함과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다”며 “19세에 획득한 혼합복식 올림픽 금메달부터 46개의 슈퍼시리즈/월드투어 우승 기록까지, 이용대는 복식 경기를 재정의했다”고 평가했다.

화순중과 화순고(현 전남기술과학고) 출신의 이용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효정과 혼합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배드민턴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정재성과 남자 복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용대는 박주봉(2001년), 김문수(2002년), 정명희·정소영(이상 2003년), 김동문·라경민·길영아(이상 2009년), 하태권(2012년), 방수현(2018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10번째로



〈세계배드민턴연맹 홈페이지〉

BWF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됐다.

이용대와 함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천룡은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 2020 도쿄 올림픽 은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비롯해 B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슈퍼시리즈/월드투어에

서 22회 우승했다.

이들의 현역은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 2024 갈라 디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골, 골, 골이에요” 신문선, 축구협회장 출마 선언

정몽규·허정무와 ‘3파전’

방송 해설가와 프로축구단 사장 등을 지낸 신문선(66)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 기록분석학과 조빙교수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문선은 3일 출마 선언문을 발표해 “대한축구협회는 변해야 한다. 재벌 총수가 행정을 하는 시대는 정몽규 집행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면서 “일하는 CEO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문선은 “신문선(66)은 1983년부터 유공 축구단에서 선수로 3시즌을 뛴 뒤 일찍 현역에서 은퇴했고, 1986년부터 방송 해설가로 활동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리며, 이달 25~27일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새 회장 임기는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다.

도전장을 낸 신문선은 1983년부터 유공 축구단에서 선수로 3시즌을 뛴 뒤 일찍 현역에서 은퇴했고, 1986년부터 방송 해설가로 활동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정권 발표하는 신문선.

2011년부터는 명지대 교수로 일했고, 2014년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아 축구 행정가로도 경력을 쌓았다.

2017년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나서서 첫 ‘경기인 출신 총재’에 도전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 축구 꿈나무, 일본 센다이 주니어 선수단과 교류전

문화 탐방·공식 훈련 등

광주 축구 꿈나무들이 일본 센다이 주니어 선수단과의 교류전을 통해 우정을 다졌다.

2024 일본 센다이 유소년 스포츠(축구) 교류 행사에 광주 대자초 등 11개교 선수단 21명(임원 5명, 선수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청소년 선수단은 지난 1일 일본 센다이시에 도착해 마츠시마 유람선 선상 교육 및 스포츠데포 탐방 등을 진행한 뒤, 2일 훈련에 이어 센다이주니어팀(시오가마FC)과의 경기를 진행하며 실력을 점검했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류행사는 대한체육회의 ‘2024년도 한·일 지역·종목 간 청소년스포츠 교류 공모’ 선정으로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공모에 선정된 광주시축구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며 학생 선수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축구 꿈나무들이 2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시오가마FC와의 교류전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 선수들,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금빛 스페셜

박진철·김정길·서수연 금 등 전남 이철·문현풍 2위 기록

광주·전남 선수들이 ‘2024 전국장애인탁구 종합선수권’에서 활약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남해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5전3선승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개인 단식 경기만 치러졌으며 예선 리그전 후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에서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건 태극전사들이 출전에 우수한 역량을 선보였다.

박진철(Class2·패럴림픽 남자복식 MD4 동메달)이 1위, 김정길(남자단식 MS4 동메달)과 김

영건(남자단식 MS4 금메달)이 각각 Class4 1·2위에 올랐다. 서수연(여자단식 WS1-2 동메달, 여자복식 WD5 은메달)이 Class2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광주 탁구 이준이 Class3 2위, 김민찬이 DF 3위, 맹분호가 Class4 3위를 기록했으며 2023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서 2개의 메달을 목에 건 김성욱이 Class7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에서도 이철(Class8)과 문현풍(Class9)이 각 등급별 2위, 장철환(Class3)·손진광(Class6)·이창식(Class7) 3위에 올랐고 여자부 고희영(Class7)이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주요 국제 대회 랭킹포인트 총 100점이 걸린 대회로, 장애등급(Class1-10, 지적(11), 청각(DF))별 메달 점수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